# 생 베르나르 고개(St. Bernard Pass).

스위스를 여행한다면 생 베르나르 고갯길을 꼭 한 번 둘러봐야 한다. 마티니(Martigny)부터 시작되는 구불구불한 고갯길은 과수원과 가파른 포도밭, 성당을 에워싸고 있는 돌로 지어진 가옥들, 좁은 계곡, 소나무 숲과 들판을 지나며 그 길을 이어 나간다. 이 급커브로 가득한 산길을 피해 이탈리아로 곧장 이어지는 6km에 달하는 터널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지라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알프스 구조견을 만나보려면 생 베르나르 고갯길이 있는 유럽에서 가장 높지만 알프스를 남북으로 관통하며 스위스와 이탈리아를 이어주는 가장 지름길인 황폐한 산길을 올라야만 한다. 이 고갯길이 이어지는 마을마다 장장 9세기 동안 얼어붙은 산정호수와 그 척박한 환경을 이겨내야만 하는 여행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자처하던 이들이 있었다.

이 곳의 여행자들을 위한 호스텔격인 호스피스(Hospice)에는 아주 작은 박물관이 하나 있는데, 이 곳의 전시품에서 얼마나 용감한 이들이 이 위험천만한 지름길을 택했는지 그 아슬아슬한 여정을 찾아볼 수 있다. 시저 역시 기원전 57년에 “알프스를 지나는 상인들이 안전하기를 바란다. 그들은 위험을 각오하고 무척이나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는 셈이니 말이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1800년 5월, 보나파르트는 그의 황금부대와 6천필의 말, 60대의 대포, 30대의 차량, 상태가 좋지 않은 신발을 신은 군대를 이끌고 이탈리아에 거주하고 있는 오스트리아인들을 공격하기 위해 눈 덮인 알프스를 건넌다. 9일 동안 푸른 제복의 군대가 산길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졌지만, 몇 조각의 비스킷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만 소지한채 행진 명령을 받고 아침일찍 출발한 그들은 10시간의 등반 이후에 지칠대로 지치고 배가 곯을대로 곯아 호스피스에 도착하게 된다. 마지막 낙오자가 도착할 때 즈음 호스피스의 창고 관리인은 자그마치 16,237병의 와인과 1,211kg의 치즈를 내온다. 보나파르트는 이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하리라 약속을 한다. 호스피스가 “제공”한 물량은 자그마치 4만 프랑에 달했지만, 호스피스는 수년이 지난 후에서야 그 액수의 반만 회수하게 된다. 베르나르 고갯길을 넘는데 성공한 그는 마렌고(Marengo)에서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나폴레옹으로 거듭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수 세기 동안 여행자들 대부분은 생 베르나르 고개를 두려워했다. 스위스를 다녀간 디킨스(Dickens)는 그의 리틀 도릿(Little Dorrit)에서 “눈보라 치던 수 많은 겨울이 지나도록 한 어머니는 그녀의 가슴에 아기를 안고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한 남자는 공포와 굶주림으로 팔을 입에 올린 채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다.”라고 썼고, 알렉상드르 뒤마(Alexandre Dumas)는 “어둡고 찌그러진 형체들은 우리로 하여금 똑같은 끔찍한 결말을 두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렇게 오래되고 좁은 고갯길에 대한 공포에도 불구하고 생 베르나르 고갯길 “순례”는 계속되고 있으며, 고갯길의 주변 마을의 환대에도 변함이 없다. 그러나, 지라르(Girard) 신부는 기억한다. “1905년 차량용 도로가 만들어지고, 1964년 터널이 뚫린 이후, 여름 내 그리고 겨울 내, 수 많은 이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상 베르나르 호스피스와 심플론(Simplon) 호스피스, 그리고 다른 게스트 하우스까지 손님을 받기 시작했다. 물론, 차량으로 지나는 모든 이들에게 환대를 베풀기는 어렵다. 하지만, 걸어서, 그리고 자전거나 스키로 우리를 찾는 이들에게는 언제나 음식과 묵어갈 곳을 대접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 험난한 고갯길에서 구조견으로 활약하며 유명해진 생 베르나르 개는 이제 그 큰 덩치로 인해 헬리콥터나 눈사태 조사에 구조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지만, 이 독특한 스위스 품종의 개를 위한 배리 재단(Barry Foundation)을 만들어 이들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호스피스에 있는 유리로 된 개집에서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

6월부터 9월까지 이 개들과 강아지들을 볼 수 있지만, 현재 대부분은 마티니(Martigny)에서 연중 생 베르나르 개들을 만나볼 수 있다.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은 이 개들이 목에 있는 통에 술을 담아가지고 다닌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이다. 목 아래 돌돌 말아 고정시켜 두었던 담요를 예술가들이 술통으로 바꾼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 이 개들은 구조원들이 개가 짖는 소리를 듣고 찾아올 때까지 길을 잃은 여행자들과 끝까지 남아 있도록 훈련 받았다.

특히 가장 유명한 배리는 자유의 이름으로 유럽 전역에 전쟁을 잃으켰던 나폴레옹 시대인 1800년부터 1814년까지 살았는데, 40명의 인명을 구조했다. 배리는 죽은 뒤, 박제되어 베른(Bern)에 있는 자연사 박물관 입구에서 여전히 많은 여행자들을 맞이하고 있다.

참고자료: Petit Guide de la Suisse insolite/Made in Switzerland, Mavis Guinard, Metropolis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Switzerland Tourism**
13Fl.,Dongbu Dadong Bldg.,Da-Dong, Jung-Gu, Seoul, Rep.of Korea, Telephone +82 (0)2 3789 3200 Fax +82 2 3789 3255,
www.MySwitzerland.com It is our pleasure to help plan your holiday.